

“대통령, 중대본 방문때까지 대면보고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월호 유가족, 참사 관련 89개 의혹 제기

해경 에어포켓 가능성 낮아도 ‘보여주기’ 구조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받은 기관보고를 자체 모니터링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의문점을 정리,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특별위원장의 발표로 이뤄진 행사에서는 참사 당일인 4월 16

일 오전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질타와 의문이 쏟아졌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해경에 대해서는 “선내의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상황보고서 등을 토대로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기 용’으로 이를 전제한 구조 작업을 펼친 것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또 해경의 잠수 가능한 구조 전담인력이 186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공기탱크와 기체혼합장비 등 심해까지 잠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춘 인력은 특수구조단 11명에 그친다는 자료도 공개하며 “해경이 최선을 다해도 구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직체였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시각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기록 네 차례 수정 ▲급변침이 침몰 원인인지 여부 ▲10시 15분에 이뤄진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경우 등 수십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였다”며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 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씨랜드 화재 사고 등 각종 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 방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뜻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참사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적절한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수부진 경기 하방 리스크 커졌다”

최경환·이주열 첫 조찬회동

“기준금리 한은 고유 권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만나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아침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주열 총재는 “경제는 보는 시각이 (최 부총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준금리의 ‘금’ 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 자주 만나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에서 최 부총리는 이 총재에게 “기획재정부 경제팀과 한국은행은 경제

의 양 축이 아니겠느냐”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경제 인식을 나누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전반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후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1979년에 한국은행에 취업했다가 공무원으로 옮긴 인연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총재가 “(두 기관이) 열심히 나름의 역할에 따라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화답했다.

한은은 ‘정부와 한은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동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주경호 기재부 1차관, 장병화 한은 부총재 등 두 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부총리-총재뿐만 아니라 간부와 직원들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은 등 시인 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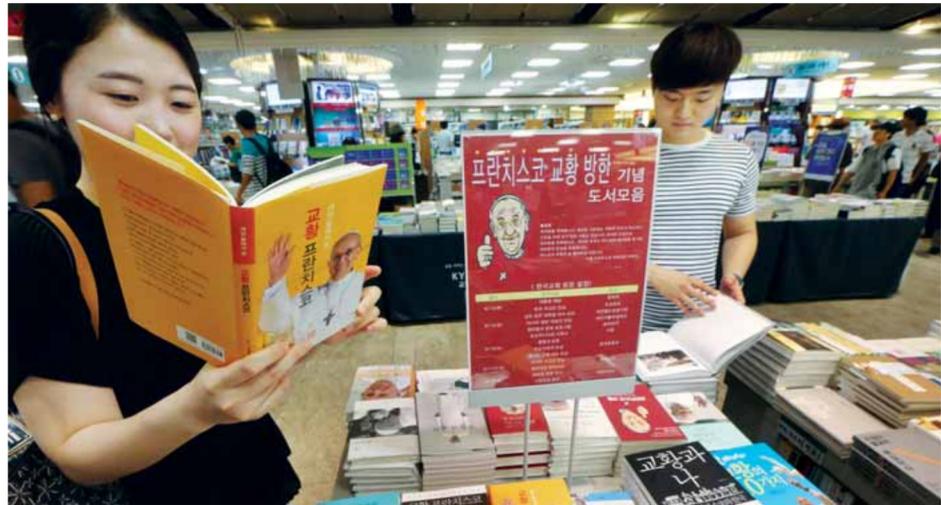
세월호 위로 시집낸다

고은 시인 등 한국작가회의 소속 대표 시인 69명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시집 출간에 동참했다.

21일 실천문학사와 문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제목의 시 모음집을 급주 중 실천문학사를 통해 출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측은 시인들의 인세 전액과 출판사 수입 10%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세월호 사고 유가족 지원사업 등에 쓰이게 할 방침이다.

고은 시인 등 참여시인 일부는 24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추모공연에 참석해 시 낭송에 나선다. /연합뉴스



교향 방한 앞두고 관련 서적 열풍

오는 8월 14일 교향 프린치스코의 한국 방문을 맞아 출판계에서도 ‘교향 열풍’이 창인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교향 프린치스코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 호남권역재활병원 정상화 돼야”

전국보건의료 노조 촉구

조선대 위탁 제대로 시행 안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 30여명은 21일 “300억원의 혈세로 만들어진 광주시립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립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개원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체 150병상 중 75병상만 운영되고 있고 심야에 당직의사마저 없다”며 “특히 수(水) 치료기와 로봇치료기 등을 갖추지 않고 전담대와 조선대 등 지역 내 우수 의료기관과 재원으로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로부터 10년간 민간 위탁을 맡은 조선대는 위탁을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6개 국가권역재활센터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근로조건이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어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양질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전문 치료기기를 확보하고 적정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병원 측과 노사교섭이 되지 않아 지난 1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반쪽 경영을 타개하고 파업을 종재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작년 광주 외국인 의료관광객 13% 증가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전년도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된 광주지역 의료기관 56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900명으로, 2012년 1648명보다 13.3%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환자가 전체 26%(495명)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188명), 일본 8%(157명), 베트남 6%(121명) 순이었다. 진료과목은 성형·피부, 산부인과, 내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건강검진센터 이용자는 208명으로, 전년도 대비 352.2%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6.8% 증가한 18억원으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7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나는 의료관광도시 광주’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인 통역인력 양성, 지원, 교통·관광·숙박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국내외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AI 추가 발병 없으면 8월 중순 종식선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재발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추가 발병이 없으면 다음 달 중순께 AI 종식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태원 농식품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을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발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8월 중순께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성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를 실시해 26일 이곳에 오리를 공급한 전남 나주의 부화장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AI 감염 가금류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을 마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인근 위험지역의 해당 가축을 검사해 문제가 없으면 종식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사에 최장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종식 선언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4년 9월 14일 ~ 11월 9일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1. 참가신청**
 - (1) 참가 신청 기간 : 2014년 7월 17일(목) ~ 7월 30일(수)
 - (2) 구비서류 :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 (3)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뒀 수 있음
- 2. 참가팀수** : 무등·광일 토너먼트 각16개팀(총 32개팀)
- 3.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 (1) 무등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2) 광일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4. 시상**
 - (1)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2) 최우수감독상
 - (3) 최우수선수상
 - (4) 우수선수상
 - (5) 최우수심판상

※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주최 | 62 광주일보사 주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후원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